

예술로 학교를 행복하게 디자인하는

예술 편지

2018년 봄호



Contents | 차례

01 사람과 함께 하는 예술

김영리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 창의예술교육팀 장학관)

02 책으로 만나는 예술

예술이 교실을 바꿉니다 /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책

03 학교현장에서 꽃피는 예술

* 합창으로 소통하며 커가는 우리들 / 안산 양지중학교

* 예술로 펼치는 울곡열 / 파주 울곡고등학교

* 우리 손으로 꾸미는 아름다운 학교 / 의정부 솔빛초등학교

* 모두의 꿈이 모이는 스쿨코너아트홀 / 안성 죽산고

* 자랑하고픈 우리학교 갤러리 / 화성 기안초등학교

* 문화예술로 꽃피우는 학생자치 / 이천 사동중학교

04 수업으로 빛나는 예술

프레네 자유글쓰기와 문화예술프로젝트

장화성(심원초등학교)

뮤지컬 나눔교실

고혁(고양중학교)

05 소식으로 만나는 예술

예술편지는 예술을 나누며 행복한

학교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술로 행복을 디자인하기 위해

작은 소식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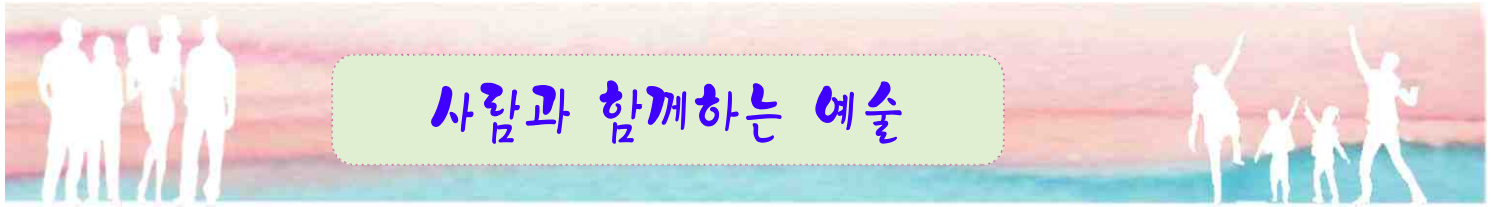
☎ 031 - 820 - 0674

장학사 류해석

✉ rhs1972@goe.go.kr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

편집 / 김 선 영



사람과 함께하는 예술

예술이 일상이 되어가는 교육을 꿈꾸며...

김영리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 창의예술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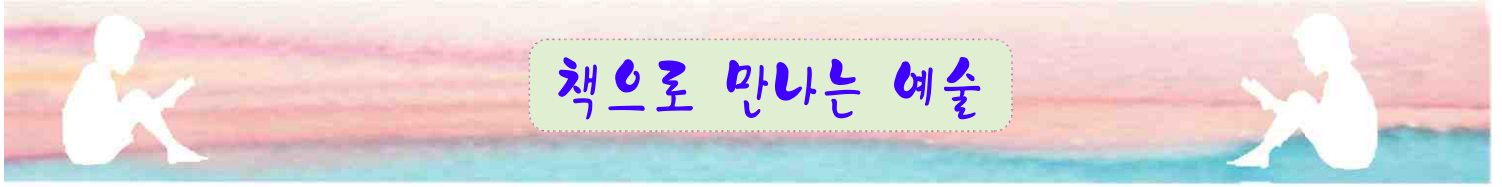
예술적 경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술적 경험과 교육이 만남으로써 익숙한 일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변화를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예술과 일상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예술이 일상이 되어갑니다. 더욱이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성과 더불어 감성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감성함양을 위한 예술교육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예술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요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분야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이 자존감향상, 자신감, 협력을 통한 배려와 공감능력 향상 등 바른 인성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술공감!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현’을 목표로, 보편적·일상적 예술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내용으로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공감터’ 조성을 권장하며 이곳에서 학생주도의 쉼과 나눔이 있는 문화예술활동이 상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음아트’ 운영교를 확산하여 학생주도 예술체험을 통해 꿈을 찾아가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적용이 어려운 예술체험을 위한 공간 조성 요구에 부응해 나가고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기자재 및 설비가 구비된 특화된 통합예술교육 공간을 구축 중입니다.

이곳은 단편적 기능위주의 예술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중심, 생각하는 통합예술교육으로 나아가는 예술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술은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는 시대적 인식에 맞추어 분과적 예술수업에서 벗어나 예술중심융합수업으로 수업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우수 수업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술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낮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학교 교육을 해 나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만. 이에 대한 해결에 예술교육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책무성을 느끼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 스며들지 못하면 공허합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선생님들의 인식과 실천이 열쇠가 됩니다. 교과간 융합수업, 지역과 연계한 교육이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학교의 교육활동 분야 중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예술교육에 예술교과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책으로 만나는 예술



창의예술교육'은 감수성과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키워 주는 교육이다. 자신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남을 따라 외우는 것이 아닌 자기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교육이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대담보다 질문이 중요한 교육이다. 정답이 없는, 모두가 나름대로 옳은 교육이다. 실패와 낙오 없이 모두가 성공하고 각기 존중받는 교육이다. 그리하여 누구나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머리말] 중에서

저자소개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
(Teacher Artist)

서울문화재단예술가교사(TA)는 예술에 대한 통합적 활용 능력과 교육적 역량을 함께 갖춘 사람들이다. 초등공교육과 연계된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사업에서 다양한 미적체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과정을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책은 TA들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개발·운영한 <예술로 돌봄> 수업지도안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처음 가르치는 교사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수업 과정을 대화체로 재현한 통합예술교육 가이드북이다.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상호작용, 변형, 움직임, 상상 등 통합예술교육의 영역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방법과 현장 활용 팁, 교사의 자세, 학습자 반응과 효과 등을 TA들이 직접 설명하는 'TA 가이드'를 각 부마다 수록해 프로그램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의 흐름대로 학습하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교실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학습해도 좋다. 한 학기 동안 실제로 진행한 [예술로 돌봄] 프로그램 구성을 부록에 예시하여 통합예술교육의 흐름과 교육 효과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사 서평 중에서)

아이들은 몸을 맞대고 이야기 나누는 데 익숙하다. 머리로 이해하고 기억하기 전에 손과 발을 사용하고 몸으로 탐색하여 직접 경험한다. 아이들의 몸은 서로를 탐색하는 훌륭한 재료다. [1부 상호작용 TA 가이드] 중에서

수업 안에서 시공간의 변형을 위해 훌라후프를 살짝 통과했을 뿐인데, 거미줄같이 꼬인 선을 조심조심 통과했을 뿐인데, 천과 천 사이를 비집고 나왔을 뿐인데, 아이들은 어느새 우주에, 북극에, 바다 속에, 과거나 먼 미래에 먼저 도착하여 그 순간을 즐기고 있다. [2부 변형 TA 가이드] 중에서

전문 무용수처럼 멋진 춤을 만들고 보여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없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평소에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인식하고 관찰하여 손을 한 번 들어보는 것, 한 바퀴를 돌아보는 것, 몸을 한 번 흔들어 보는 것 등 움직임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3부 움직임 TA 가이드] 중에서

상상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들의 삶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가장 멋진 도구다. 미적체험 예술교육을 통한 상상은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저마다의 감각을 톡톡 두드려 깨워 주고, 개개인 특유의 감성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길러 준다. [4부 상상 TA 가이드] 중에서

학교현장에서 꽃피는 예술

나누고 싶은 예술활동

양지중학교

합창으로 소통하며 커가는 우리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양지중학교에서는 합창활동을 통해 밝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가꾸어가고 있다.

특히, 3학년 전체 학급이 참여하는 음악활동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자주적인 민주시민의 자세를 배양해오고 있다. 학급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실전 무대 경험을 통해 공연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리에 대한 민감성과 감수성을 기르는 예술활동이다. 무엇보다, 교육과정 운영상 취약시기인 11월~12월의 중3시기를 합창이라는 예술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운영상의 특징이 돋보인다. 빠른 비트의 전자음악에 익숙해져있는 학생들은 이 기회를 통해 순수음악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성부간의 조화를 통해 성취감, 자신감, 소속감, 단합력,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리더십을 강화하여 매년 높은 참여와 무대에서의 호평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학급별 합창활동



교내 합창대회

“나에게 합창은 숲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이 모여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것처럼 다른 성격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노력해서 멋진 무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3-5 정○○

“합창은 끈끈이다. 왜냐하면 우리 반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3-5 김○○

“나에게 합창은 은하수이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실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부족하더라도 함께 노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노래하고 즐겁게 춤을 출 때 비로소 서로 다른 빛이 모여 은하수를 이루고 황홀한 광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3-5 최○○

감동을 선사하는 신비로운 힘, 그것은 예술의 강력한 힘이다.

3학년 음악교사 박○○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아름다운
화합의 소리를 내준
3학년들이 정말로
멋지게 빛나는
순간이었다.

3학년 음악교사 박○○

아름다운 화음과
멋진 율동이 조화를
이룬 공연으로
마무리한 우리반
친구들의 모습이
대견하다. 공동체의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3-11 김○○ 교사

합창 때 나왔던
노래들은 한동안
귀속에 맴돌 것 같다.
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준
공연이었다.

3-2 신○○교사



한양대학교 컨퍼런스홀 연주



학교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장

우리 양지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준비 과정속의 열정과
추억거리가 무대에서
고스란히 전해져 너무
뿌듯하고 흐뭇한
시간이었다.

3-3 박○○학생 어머니

순수함을 잃지 않은
모습에 가슴이 뭉클
해졌다. 그동안
연습하느라 고생한
3학년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3-6 김○○ 학생 어머니

올해에는 3학년 졸업식이 전체행사 없이 학급별로 이루어져서
이번 대회가 3학년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두 달 동안 대회를 준비하며 반마다 합창소리가
흘러 나와 온 교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하루 종일 노래 소리에
취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최○○ 교장선생님

진중하며 열정적으로,
환하게 노래하네요.
아이들에게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3-7 최○○ 교사

예술로 펼치는 울곡열

파주에 있는 울곡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예술적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펼쳐내는 예술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활동에 참여하며 정서 순화 및 자신감을 함양하여 전인교육에 힘쓰는 현장의 면모가 운영계획단계에 나타나 있다.

I. 목 적

1. 학생들의 예술적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
2. 학생의 정서 순화 및 자신감 함양으로 전인교육을 도모
3. 안전이 뒷받침된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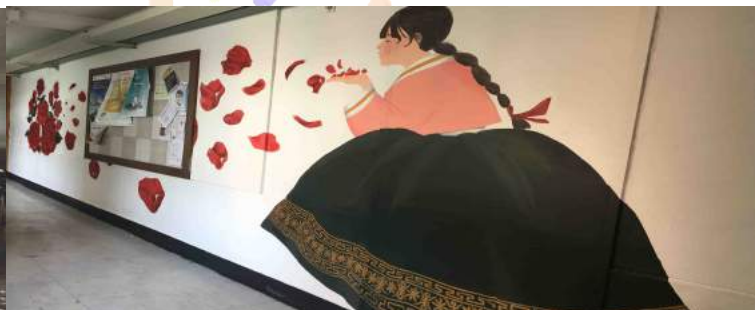
II. 추진 계획

1. 일 시 : 2017. 10. 27.(금) 4,5,6,7 교시(13:00~16:50)
2. 장 소 : 파주시 법원읍 문화창조빌리지
3. 행사내용 : ▶ 울곡 열 글짓기
▶ 울곡 열 계승 예술체험 미술 활동
▶ 울곡 열 가요제 및 음악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울곡의 열을 계승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또한 뜻깊었어요. 늘 아쉽지만 좋은 음악을 들려 줄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울곡고 2학년 한민규 -



우레 손으로 꾸미는 아름다운 학교

솔피초등학교 벽화동아리는 학교 안과 밖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결성된 자율 동아리이다. 의정부 혁신교육지구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하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올해도 11명의 부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벽화동아리 활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올해의 큰 변화는 아이들의 자율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아직 초등학교 친구들이기에 부족하고 모자란 점도 있지만 어떤 활동을 할지 아이들끼리 스스로 의논하여 정하고, 활동하며 생기는 문제들도 아이들끼리 스스로 해결하였다.

2017년에는 미술관 현장체험학습, 학교 벽면 모자이크 작품 제작, 용현동 동문아파트 쉼터 채색, 운동장 원형 의자 채색, 교육청 주관 페스티벌 참여 및 부스운영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동아리 회칙을 만들어 서로 약속하여 지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아직 초등학교생들이기에 예산 사용과 물품구입은 지도교사가 도움을 주었으나 앞으로 총무와 감사의 역할을 만들어 아이들이 직접 물품구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아이들의 손으로 아름답게 꾸며질 내년 벽화동아리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학생이 기획하는 '작은 축제'

죽산고등학교

모두의 꿈이 자라나는 스쿨코너 아트홀

안성죽산고 학생들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스쿨코너 아트홀 향연을 통해 문화예술경험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재능을 발휘하여 나누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 노래와 춤, 랩 공연 또는 전시를 자발적으로 구성하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축제로서,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어 문화감수성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 행사운영은 학내 학생자치회인 다·다·다 의회교실운영진 주관으로 음악교사와 미술교사의 협조를 통해 학교 유휴공간 곳곳에서 월별 '주제'가 있는 미니콘서트를 진행한다. 학생들이 직접 무대를 구성, 설치하고 주제에 맞는 랩과 노래를 작사, 작곡하여 공연함으로써, 예술을 통하여 더 좋은 실천을 일구고 있다.



운영개요

일시: 5월 31일, 7월 18일, 9월 20일, 11월 29일, 12월 22일 점심시간

장소: 운동장 코너 돌 벤치, 음악실, 시청각실

대상: 학교 희망자

월별 세부운영계획

시기	주제
5월	감사
7월	리더, 힘내!
9월	시간과의 이별
12월	캐롤송

쉽과 나눔이 있는 문화예술환경

화성기안초등학교

마음이 꽃피는 전시회



화성기안초등학교에서는 학생작품전시를 통한 문화예술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각 학급에서 작품을 추천받아 한 자리에 전시하는 기획이 그것이다.

학기 초 각 학급에 액자를 2개씩 배부하여 3월 넷째 주부터 작품 전시를 시작하고 새로운 작품은 학급자율을 바탕으로 수시로 교체한다. 학년마다, 교실마다 또 학생 개개인마다 다른 배움과 생활이 저마다의 눈높이와 손길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일년 사계절의 변화 속에 담아낸다. 이를 통해 전 학교 공동체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가지며 아울러 미술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어느 날

지나가는데 제 작품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화가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재미있고 신기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하교 하는 길에 들러서 한참
동안 구경 하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학년

언니들 협동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정말
멋있어요. 저도 친구들이랑
멋있는 협동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전시되어 있는

제 작품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다른 친구들 작품을
보면서 작품의 아이디어를
얻어갑니다.

우리 학교에 작품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초등학교생들이
그렸나 실을 정도로 멋진
작품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다른
전시회들도 다녀 볼 거예요.

열심히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멋지게 그림을 그려서
또 전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로 꽃피우는 학생자치



문화예술로 혁신적인 학생자치 문화 꽃피우다

이천사동중 문화예술로 새로운 학생자치 문화 정착

이천사동중학교(교장 남기흥)에서는 4월에만 두 번의 행사가 열렸다.

4월 6일에는 ‘열·배·드림’ 이천사동중 학생자치회(지도교사 김연봉) 주관 친구사랑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의 일부로써 ‘사동 봄날 사랑 버스킹’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고 학생자율동아리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버스킹 행사에는 야외용 엠프가 사용되었는데 이 엠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술공감터 예산으로 지원되었다.

학생자율동아리의 공연과 선생님들의 찬조 공연으로 학생들은 재밌어 하였다.

학생자치회장 김우림(3) 학생은 “학생들이 주도하는 공연 문화가 정착되어 학생들의 재능을 꽃필 수 있어서 뿌듯하고,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자치활동 중점학교인 우리학교의 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4월 16일은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열·배·드림’ 이천사동중 학생자치회와 학생자율동아리 ‘히스토리아’(지도교사 진성민)

에서는 ‘세월호 4주기 기억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4년 전 세월호 참사를 학생들에게 기억시키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을 위로하며 자신이 살아가야 할 ‘안전한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는 행사였다.

이젤에 게시된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바로 알고 유가족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를 메모지에 남기면 동아리 학생들은 참여한 학생에게 노란 리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예술공감터 예산으로 지원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여 세월호 가족들이 부른 ‘네버엔딩스토리’가 재생되었다. 이 노래를 들으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마지막 메시지를 본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행사를 진행한 학생자율동아리 ‘히스토리아’ 회장 장인혁(3) 학생은 “부족한 행사였지만 학생들과 같이 공감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매우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수업으로 빛나는 예술

프레네 자유글쓰기와
문화예술프로젝트!

1. 궁금해요~ 프레네 글쓰기와 문화예술프로젝트

■ 자유글쓰기 활동은 글을 쓰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즉 쓰게 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는 것’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활동입니다.

■ 감각으로부터 머리로 전달되는 모든 것을 어깨에서 손으로 전달하여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무엇을 쓸 것인지 생각을 하거나, 써도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글쓰기 활동입니다.

■ 기존의 글쓰기 활동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머릿속에서 통제하고 있는 문법, 띄어쓰기, 도덕적 통제를 풀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글쓰기에 있어 첫 번째 할 일은, “문법과 철자를 문밖으로 보내버리는 일과, 통제를 밖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2. 궁금해요~ 수업의 과정!

1-2차시	‘김춘수의 꽃’을 읽고 자유롭게 의견 나누기
3-4차시	학교주변 함께 거닐며 프로타주 활동 - 장소와 관련된 공통점 발견하기
5-6차시	프로타주 작품에 나타난 장소 중 하나를 선정해서 자유글쓰기 활동하기
7-8차시	서로의 작품을 발표하고 생각 나누기
9-10차시	나의 추억이 담긴 학교의 여러 장소에 가서 자유글쓰기 활동하고 시화로 만들 대표작 선정하기
11-12차시	시화를 그리고 작품을 전시할 장소 선정하기
13차시	학급을 절반으로 나누어 자기 작품 해설 활동을 하고 소감문 쓰기

3. 궁금해요~ 배움중심수업의 과정!

단원	국어 6-1-4. 작품에 대한 생각(8차시) 미술 6-3-(1) 새로운 시각으로(5차시)				차시	중 13
배움 주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시집 만들기					
성취 기준	국어	4. 작품에 대한 생각	1-2 (2)	84-103 (78-81)	좋아하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쓰기	국1651-1 자신이 인상 깊게 읽은 문학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국1634-2 주변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미술	1. 새로운 시각으로	1-2 (4)	10-13	대상과 자신의 특징 지각하기	체형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 발견하기
	국어	4. 작품에 대한 생각	3-4 (6)	94-99	좋아하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쓰기 국어활동 한글의 우수성 찾기	국1651-1 자신이 인상 깊게 읽은 문학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국1634-2 주변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7-8 (8)	활78-81		
			5-6 (10)	100-103		
	미술	1. 새로운 시각으로	3-4 (12)	10-13	대상과 자신의 특징 지각하기	표현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 표현방법, 표현 과정 등을 탐색하여 표현하기 감상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 설명하기
	미술	1. 새로운 시각으로	5 (13)	10-13	대상과 자신의 특징 지각하기	감상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 설명하기
배움 목표	국어	4. 작품에 대한 생각	문학	시를 읽고 감상 요소가 잘 드러나게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였다.		
	미술	1. 새로운 시각으로	체형	우리 주변의 생물 및 사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하여 특징을 찾아서 자신의 생각 혹은 느낌과 관련지어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역량	새로운 매들, ‘김춘수의 꽃’	의사소통	동료들이 생산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활동 (3/13)	내용					준비물
◦ 프로타주	1) 빈손으로 학교주변 여러 장소를 모두 친구들과 함께 거닐기 2) 프로타주 활동을 하며 작품을 만든 이유 적기 3)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공통점 발견하기 4) 정리하기: 공동의 기억을 바탕으로 맥락지어진다는 것의 의미 발견하기					크레파스 혹은 색연필과 종이

4. 수업의 Tip !



■ 글을 읽어주는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문학과 철자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글을 못 쓰는 이유는 '글을 못 쓴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텍스트의 길이, 내용 등등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있어서는 안 된다.



■ 글을 읽어주는 사람은 선물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내 삶의 원천이 된다.
내면의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고민한다. 되어가는 것이다.

■ 아이들의 글을 모아서 신문이나, 시집, 소설집으로 공유한다. 아이들의 작품이 도서관에 있어야 한다.
보통의 학생들의 과제는 일률적으로 교사의 검사 후, 그 학생의 노트 속에 사장되거나 교사에 의해 의미심장한 결과만이 발표의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너와 나가 만나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즐거움이다.

5. 수업 후 이야기 !

■ 표현하고 발견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자기를 발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 시 한토막

집중

이연주

앞에서 계신 선생님
조용히 시 적으라 하시는데.

오히려
선생님 말씀 때문에
조용히 시를 못 쓰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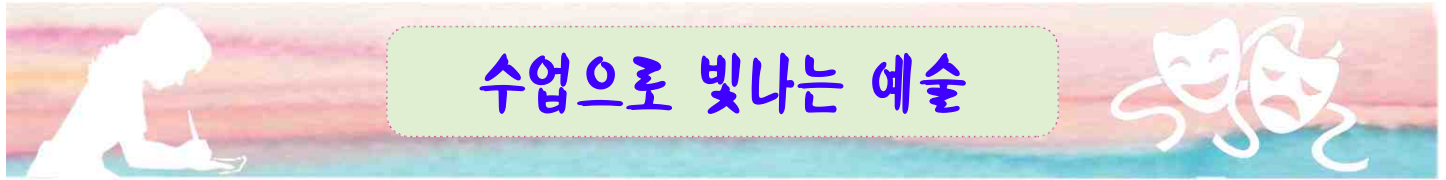
옆 짝궁도
계속 시끄럽게 해댄다.

■ 아이들의 한마디

'나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에게 없던 자신감이 생겼다.'
'배움과 나눔 그리고 배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습을 하면서 글 실력이 좋아졌고 발표하는 능력이 좋아졌다.'

■ 동료 교사들의 한마디

'나 자신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다.'
'교과서 중심인 경우 그 안에 빈 칸을 채우거나 짧게 이야기 나누고 수업이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는 수업을 만든다.'



드라마 기반 표현활동(Drama-Based Instruction)의 수업활용(뮤지컬)

1. 궁금해요~ DBI란 무엇인가요?

■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몸과 오감을 활용해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DBI입니다.

■ 즉흥성(암기가 아닌 유의미한 반응 중심), 비전문성(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선생님과 학생을 위한), 과정중심(결과물이 아닌 수업과 과정 중심), 협력학습(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넓은 활용범주(다양한 맥락과 상황에 적용 가능)의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궁금해요~ 영어뮤지컬 수업의 과정!

창의적 드라마 기법의 재미 느끼기 활동(1-2차시) 	작품 속 등장인물 이해활동 (Talk Show 등 3-5차시) 	썸 나누기 활동(Poster Dialogue 등 6-7차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독서 활동(Hot Seating 8-10차시) 	스토리라인 구성 활동(4컷, 8컷 만화 등(11-12차시)) 	대본쓰기 전후활동(대본쓰기 수행평가 등(15-17차시))
노래 개사래 부르기 및 대본 읽기 활동(18-21차시) 	리허설 및 의상제작 등 (22-28차시) 	최종 리허설 및 공연 (29-30차시)

3. 궁금해요~ 배움중심수업의 과정!

활동명	Hot Seating
수업의 흐름	<p>1. Warm-up 담당 교사가 직접 “오즈의 마법사” 속 겁쟁이 사자 역할을 했던 장면 사진을 보여주며, 어떤 점에서 겁쟁이 사자 역이 좋았는지 학생들과 나눈다.</p> <p>2. Presentation & Practice Dorothy 배역을 맡은 학생들이 어떤 점에서 자신의 배역을 좋아하는지 Modelling을 통해 나누어 본 후, 2인 1조가 되어 서로 어떤 점에서 자신의 배역을 좋아하는지 WH-Q 유형의 문형을 통해 말해보고, 발표해 본다.</p> <p>3. Hot Seating – Press Conference 이전 세 차시에 걸쳐 진행했던 오즈의 마법사 요약본 및 장면별 질문 용지를 살펴본 후, 5개 썸 별로 인터뷰 질문을 준비한다. 첫 번째 썸 학생들을 위해 나머지 네 개 썸 학생들은 조별로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고, 첫 번째 썸 학생들은 예상 질문을 만들어 기자회견(Press Conference)을 준비한다. 준비되면, 첫 썸 학생들이 나와 일렬로 앉고, 다른 조 학생들이 기자가 되어 질문하면, 첫 썸 학생들이 극 중 인물이 되어 대답한다. 그런 방법으로 마지막 썸까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p> <p>4. Review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고, 가장 잘 대답한 썸을 모두 함께 골라본다.</p>

4. 수업의 Tip !

■ DBI 기법이 교실 수업상황에서 가지는 의미?

1) 수업 활동에의 몰입

DBI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몸과 오감을 이용해 즉흥적인 상황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협력하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준다는 면에서 학생들이 수업 각 상황을 즐기며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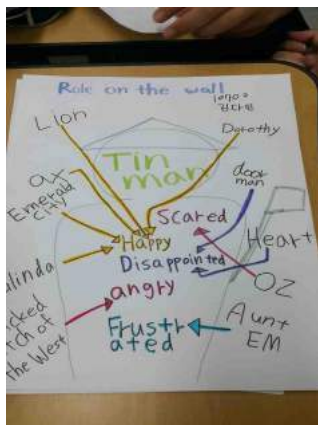
2) 수업 주체로서의 학생

DBI 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야기에 기반한 생각들을 표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자기표현과 상상력 발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수업에서 학생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합니다.

3) 다양한 맥락에의 활용 가능성

연극영화과에서 먼저 시작한 접근법인 만큼 각 교과별로 맞춤 제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과에서는 자신의 맥락에 맞추어 변형하고 재구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역으로 각 맥락과 상황에 맞추어 얼마든지 각 활동들을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그 적용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5. 수업 후 이야기 !



Role on the Wall 활동
(대본쓰기 브레인스토밍)



자기표현 활동



공연 포스터



공연 리허설



커튼콜 1



커튼콜 2

소식으로 만나는 예술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로 행복한 수업나눔' 시작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로 행복한 수업나눔'이 4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문화예술로 행복한 수업 나눔'은 현장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수업사례나눔 및 체험실습을 통해 참여 교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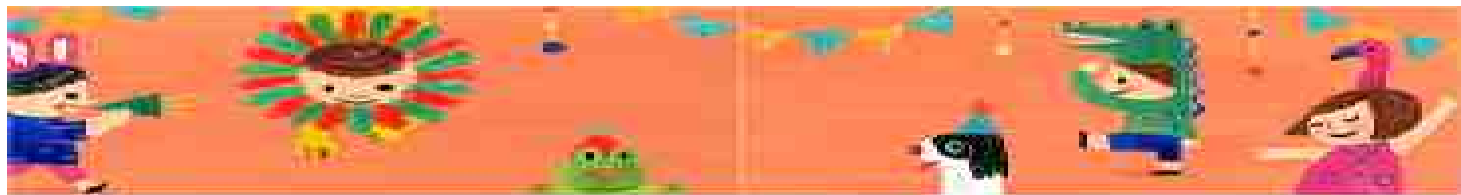
1학기에는 29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현재 진행 중으로 주말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참여형 워크숍으로 운영된다.

'문화예술로 행복한 수업 나눔'은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시작

바쁜 일상에 쫓겨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시간을 갖고,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주고 싶은 부모님에게 희소식이 있다. 매주 주말 가까운 문화기반시설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이 올해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 4월부터 매주 주말 900여 개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아동·청소년 및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주말여가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미술,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박물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에서 진행한다.



경기도 미술관 진로교육 프로그램 안내

경기도미술관은 학급 단위의 초, 중, 고등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술 분야 전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술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단체 체험학습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 일시 2018년 3월 27일 ~ 6월 29일 (화~금)
- * 시간 10시-12시 (2시간)
- * 대상 초(6학년), 중, 고등학생 학급 단체
- * 장소 경기도미술관 배움센터
- * 참여비용 무료 * 참여방법 온라인 사전 접수
- * 교육내용 경기도미술관 소개와 미술관 직업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학생 개인이 스스로 전시를 기획하고 공간을 구성해보는 워크숍 프로그램

